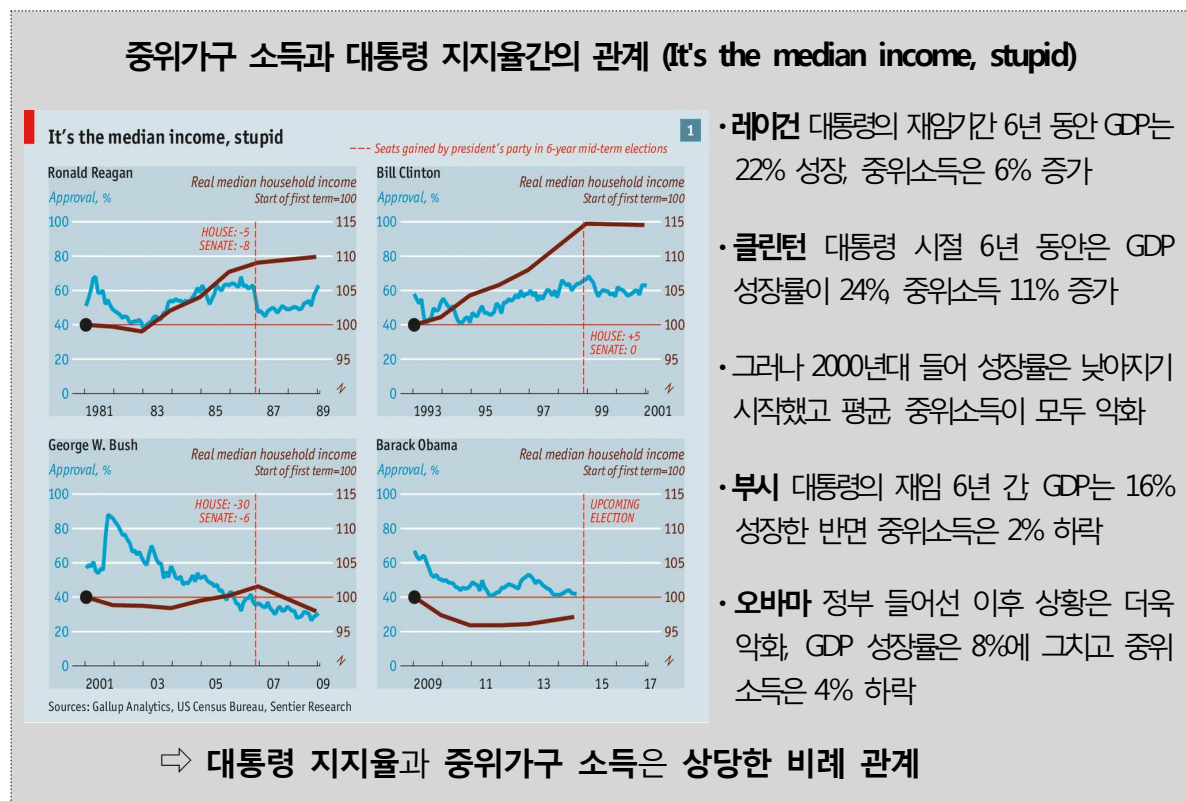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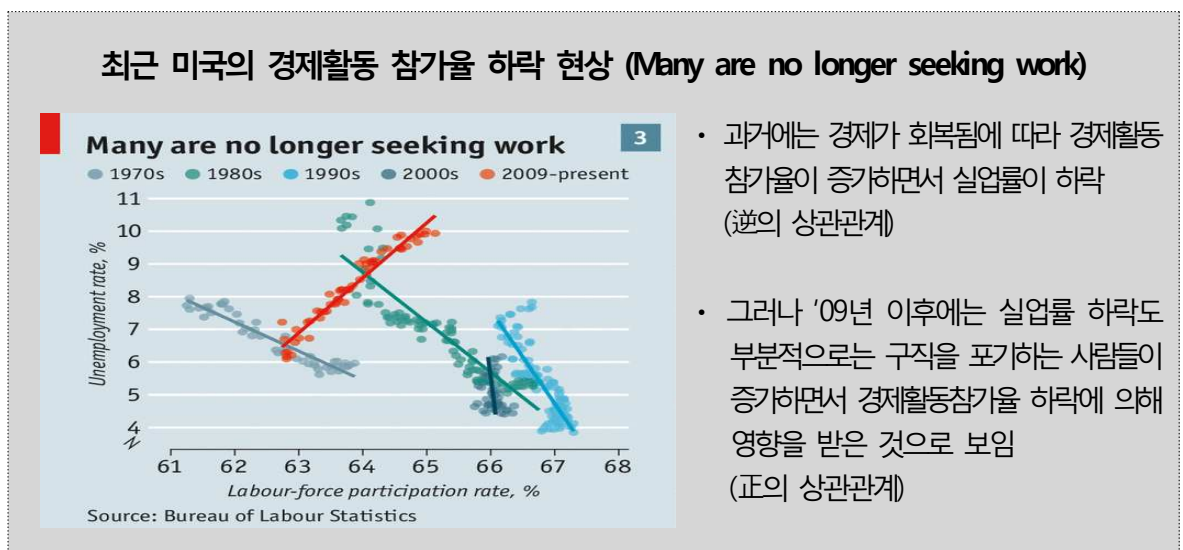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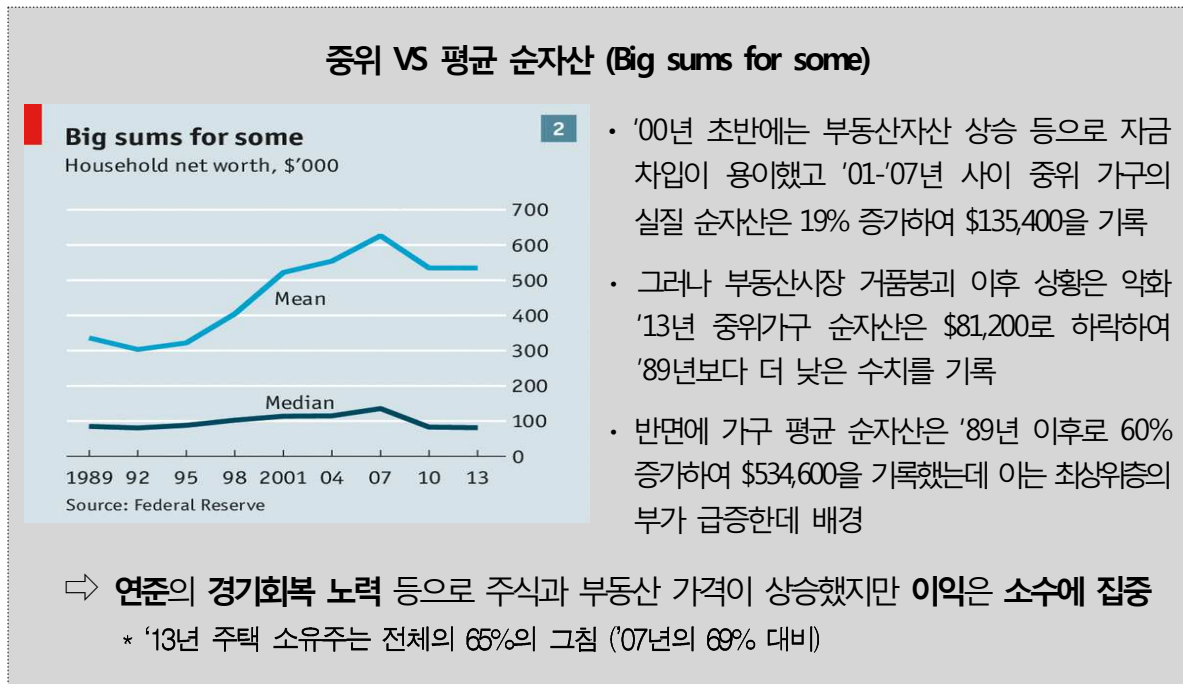
외신 동향

□ “The woes of the average Joe” , 보통사람들의 비애 [Economist 14.09.27]

- 미국경제가 회복되고 있음에도 정작 유권자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
- 상당한 경기지표 회복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율은 높지 않음
 - * 생산과 고용 모두 침체기 이전의 정점을 넘어섰고, 실업률 또한 6.1%까지 하락
 - 오바마 지지율은 43%, 경제정책 지지율은 39%에 불과하며 경제정책에 관하여 민주당 보다 공화당을 더욱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남
 - 이처럼 오바마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유권자들이 경기회복을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며 이는 불평등 확대로 인하여 중위가구소득이 악화된 점이 배경
- ⇒ 눈에 보이는 미국경제 지표에 비해 다수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매우 낮은데서 오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낮은 지지율로 표출
- 불평등은 실제로 80년대 초반부터 확대되었는데 이후 20년간은 전반적인 경제 성장이 중위가구 소득을 끌어올리기에 충분했으나, 00년대 이후 상황이 변화



○ 중위소득 부진은 부시, 오바마 두 정부 모두 발생했지만 중요한 차이가 존재



○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선거 유세과정에서 **파퓰리즘적 경제정책**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**불평등 확대의 완화**에는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**근본적 경제성장 확대**와는 무관

- 더욱 필요한 것은 조세개혁, 사회기반시설투자 증대, 직업훈련 확대 및 실업보험의 전반적인 개편 등인데 이는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결과를 얻기까지 장기간이 소요
- * 최저임금 인상, 학생 채무 탕감, 여성에 대한 임금 차별 금지법 확대, 조세회피를 위한 기업의 해외 이전에 대한 금지 조약 설립 등